

시설경비콘텐츠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f Facilities Security Contents

박영만 (여주대학)

차 례

1. 서론
2. 시설경비의 대상 및 경비원의 역할
3. 시설경비의 유형
4. 국내 시설경비산업 현황
5. 시설경비산업의 전망

1. 서론

현대사회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인간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민간경비에 대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이라 하겠다. 각종 범죄의 증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두려움을 초래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물론 인간성 상실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과 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민간경비는 경찰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하는데 시설경비는 좁은 의미(협의)의 시설경비와 넓은 의미(광의)의 시설경비를 포함하는 즉 사람 및 시설물을 경비하는 작용을 말한다. 좁은 의미(협의)의 시설경비란 국가의 재산·인원·문서 등을 간첩·테업·비인가자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경비작용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시설경비라 하면 협의의 시설경비를 가리켰다. 넓은 의미(광의)의 시설경비란 국가의 재산·인원·문서뿐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상 중요한 시설·인원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하여 침해·위험으로부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비작용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비업법 제2조에서의 경비업의 개념은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1].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즉 타인의 의뢰를 받아 빌딩, 사무소, 대형판매시설, 호텔, 병원, 은행, 미술관, 박물관, 공장, 창고, 백화점, 시장, 흥행장 등의 시설에서 도난, 화재 등의 각종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이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평온을 유지하여 고객이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경비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당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도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경비는 시설 자체뿐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인적, 물적, 보안유지 및 정보보호까지 담당하게 되는 도탈 시큐리티라는 점에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 시설경비의 대상 및 경비원의 역할

시설경비는 경비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공경비와 사경비, 경비목적에 따라 행정시설과 산업시설, 경비중요도에 따라 분류된다.

시설경비원은 시설물 내에서 방문객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거나 수행하기도 하며 아울러 정보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시설물 내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안전과 보호업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第2條

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다. 경비업무수행에 있어서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근무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

2.1 국가중요시설

국가 중요시설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²⁾로 지정된 중요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³⁾들을 말한다.

2.2 빌딩 및 사무소

사무실용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 등에 의한 중층 이상의 대형 건축구조물로서 은행·호텔·학교·병원·부거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

2.3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많은 액수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강도, 절도, 고객에 대한 공격, 납치강탈, 횡령, 사기, 서류 위조 등의 금융기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4 백화점 및 상업시설

국민의 소득수준 등대 및 소비 성향의 증가로 인한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센터, 소매점 등의 판매시설의 이용으로 백화점 및 판매시설에 대한 손실은 고객과 쇼핑객들에 의한 절도 등의 외부손실, 직원 및 고용인들이 자행하는 내부 손실, 경영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관리 손실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안전관리를 말한다.

2.5 호텔 및 숙박시설

호텔은 객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연회장, 웨딩, 헬스클럽, 사우나,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시설이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고객의 증가에 따른 호텔 내·외부 경비 활동에 의한 안전관리를 말한다.

2.6 시설경비원의 역할

시설경비원의 주된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보호

둘째, 시설물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

셋째, 차량 등의 교통 통제 및 분실 방지

넷째, 일반적인 회사의 규칙준수 이행 등이다.

시설경비원의 근무자세는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주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 시설의 안전을 위한 보안의식과 자기역할과 임무를 인식하고 조직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한 협조의식을 사지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2].

3. 시설경비의 유형

시설경비는 경비대상시설의 목적, 종류,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대상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경비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시설경비업무를 분류하면 상주경비, 순찰경비, 보안경비가 있다.

3.1 상주경비

상주경비는 빌딩, 사무실, 공장 등의 경비대상시설 내에 필요한 경비원을 24시간 상주시켜 출입관리업무, 순찰업무, 감시업무를 통해 도난, 화재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경비방법이다. 상주경비업무는 경비대상 확대와 함께 업무형태·내용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상주경비의 대상은 사무실, 복합빌딩, 백화점,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 공장, 창고, 호텔, 지하상가 등 광범위한 시설이며, 이 시설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비내용도 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무내용도 방법업무뿐 아니라 화재와 관련된 업무로 소화·경보·방화설비 등의 점검, 화기 취급, 가스유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주경비업무중 주차장 관리업무로서 차의 도난방지

2) 국가보안목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하여 군사전략상 적에게 노출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막대한 손실을 입는 목표를 말한다.

3) 각종 위해로부터 파괴되었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과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설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나 교통유도, 요금징수, 차량 출입관리 업무, 행사장 등의 혼잡정리업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상주경비는 경비대 상시설에 따라서 실시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경비기술을 습득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그런 경우에 예기치 못한 사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2].

3.2 순찰경비

순찰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도난,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대상시설을 순회하는 경비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대상시설에 상주하면서 순찰활동을 통해 도난, 화재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주경비를 구성하는 일부 활동이다. 여기서는 상주하지 않고 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경비 형태를 말한다. 순찰에 관한 양자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3 보안경비

보안경비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절도를 방지하거나, 경계를 하는 경비방법이다.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사복으로 근무하며, 여자경비원이 많이 배치된다.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절도 등 점포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점포내를 경계하여 질서를 지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는 고객이 진열된 상품을 선택하여 카운터까지 가져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장이 넓어 진열대 주변까지 감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많은 점포들은 보안과를 두고 자주경비를 하고 있지만 이들과 협력하여 절도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2].

4. 국내 시설경비산업 현황

시설경비산업은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 산업으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4.1 시설경비산업 현황

다음 [표 4-1]은 시설경비산업에 대한 업체 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

표 4-1. 시설경비산업 현황 (2009. 12. 31기준)

년도	2007	2008	2009
업체 수	2,726	2,923	3,144

출처: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경비산업은 수요가 매년 증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5. 시설경비산업의 전망

5.1 산업무인경비와 소방방재 융합기술

앞으로의 시설경비산업에 있어 산업무인경비·소방방재 융합기술이 새롭게 발전될 전망이다. 에스원·ADT캡스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최상위에 있는 회사는 화재감지·보안 연동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장차 치안 불안감에 빌딩 대형화 추세로 성장성이 높다. 빌딩에 불이 나자 화재감지기가 파악한 화재 발생장소를 무인감시 카메라(CCTV)가 즉시 영상에 담아 관제센터로 보낸다. 관제센터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둘러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빌딩 내부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신고한다. 무인경비와 소방방재시스템이 결합된 융합보안이 적용되는 가상의 화재 발생 상황이다. 특히, 각계에 불고 있는 '컨버전스(융합)' 바람이 무인경비와 소방방재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 ADT캡스 등 주요 보안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세콤마스터'나 '종합안전관리 서비스' 등 화재감지와 보안을 연동한 융합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 동안 소방방재시설은 소방관련법에 의해 강제되는 반면 무인 경비시설 설치의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시스템은 따로 분리되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보안 리스크와 시스템 비효율로 인해 고객들의 융합시스템 수요가 고조되자 업체들은 최근 융합보안시장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

KT텔레캅은 지난달 빌딩 IT컨버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융합보안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학교나 고층 빌딩 등 대형 고객들을 중심으로 융합시스템 구축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달 초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하반기 출시 목표로 빌딩 융합보안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밝혔다.

한 발 앞서 시장에 진출한 에스윈의 경우 화재설비 및 시설관리를 무인경비와 융합한 융합보안상품 매출 비중이 전체의 11%로 성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무인경비와 소방방재 시스템 관리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야기되는 각종 비효율로 인해 시스템 연동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방방재 전문업체 관계자는 "화재 경보가 울려도 카드 키 없이는 다른 방으로 대피할 수 없는 사태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연동이 불가피하지만 기계오작동이 발생할 때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인경비와 소방방재 등을 결합한 융합보안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들이 두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보안서비스업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소방시설공사와 기계·기구제조 등을 포함한 소방시장 규모는 11조3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와 빌딩 대형화 추세를 타고 두 시장이 각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융합시스템 보유 업체들은 시장확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3].

5.2 감시로봇기술의 발전

시설경비산업은 기존의 CCTV, 경비기 등의 장비에서 더욱 진보하여 감시로봇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테크윈은 2009년부터 서산 석유비축기지를 감시로봇시스템 실증단지로 완공식을 가졌다. 점차 발전하는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감시로봇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로 개발한 감시로봇시스템이 충남 서산 석유비축기지에서 첫 가동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삼성테크윈은 지난해 9월부터 착공한 감시로봇 실증단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5일 서산 석유비축기지에서 '감시로봇시스템 실증단지 완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라 서산 석유비축기지 경계 4.3km에 설치된 고정형 감시경계로봇이 기지 경계 밖(주간 2km, 야간 1km)의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탐지·추적하게 된다.

이동형 로봇이 기지내 고정형 로봇의 사각지역을 돌면서 무단침입이나 석유저장탱크 주변의 화재, 누유 등을 탐지해 사고발생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로 송수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물체의 이동을 추적하고, 판단하는 인지·기능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사람이 고정된 지역의 영상을 감시하는 기존 수동형 CCTV와는 차별화된다. 공사는 이번 실증단지 구축을 계기로 석유비축기지의 경비를 자동화된 시스템 중심으로 과학화할 계획이다. 또 경비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성능과 효과 검증은 통해 국내 8개 석유비축기지로 시스템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 초기 단계의 서비스로봇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고도화 못지않게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로봇시스템을 로봇과 IT기술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한 성공모델로 평가하고 있다"며 "로봇기술을 제품·서비스와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집중 지원해 나갈 것"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테크윈은 스마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지난 5월 알제시(알제리 수도)와 약 550억원 규모의 도로교통 감시로봇시스템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호경비분야에서의 시설경비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기계경비와의 접목을 바탕으로하는 경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활동이 단순히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맹목적인 인식만 하는것이 아닌 시설경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고객의 총체적 안전을 책임지는 것임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2010.
- [2] 안황권, 시설경비론, 인천: 진영사, 2009.
-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71817221347730>
- [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0>

